

경찰공무원의 대테러리즘 인식에 관한 연구 -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을 중심으로-

주 성 빈*

요 약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A Study on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Counter-Terrorism - Focused on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

Joo, Seong Bhin*

ABSTRACT

Terrorism is a serious problem in that it can infringe on a broad range of legal interests, from individual legal interests to national legal interests. And if these legal values are damaged, it is very unlikely that they will be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vities as well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alternative policies.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author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ensuring proactive action and procedural legitimacy. It would be meaningful to look at their perception about terrorism before specific procedures and legal approaches are taken.

A Study is related terrorism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 focused on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Four phases of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Key Words: Counter-terrorism, Awareness of terror, Crisis management, Mitigation phase, Recovery phase, Education · Training, Police officers

접수일(2017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2017년 9월 25일)

*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1. 서론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등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국제범죄·조직범죄 그리고 국내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간첩 등 안보범죄로부터 국민생명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시각의 변화는 국내 대테러리즘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최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의 제정,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교통경찰,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테러 취약 요인 등을 함께 살피는 다목적 순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테러리즘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형세이다.

이 연구는 경찰의 적극적 대테러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조직이 갖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정책을 실현시키고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대테러리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정책의 실질적인 운영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현재, 국내에서 대테러리즘을 소재로 논의된 연구는 상당히 많다, 또한 그 대상자를 경찰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된 논문도 많이 축적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관련 교육경험 등과 같이 대테러리즘과 연계된 위기 관리 단계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테러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대테러리즘 위기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1. 테러리즘의 의미

2.1.1.1. 개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

첫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둘째,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셋째,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넷째,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다섯째,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1.2. 특성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테러리즘의 특성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대테러리즘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쟁점은 사전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한 테러리즘의 특성은 크게 연락수단의 첨단화와 다양화와 사전 무력화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늘날 테러조직은 여러 국가, 여러 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서 인터넷 비밀사이트, 전자메일, 첨단이동통신 등을 연락수단으로 활용하여 활동하다보니 조직의 실체도 파악이 어렵고, 조직의 무력화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2017년 현재,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리학적 접근성을 보이는 국가들이 테러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같이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과 주도권을 사전에 인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방안으로 예비·음모 처벌 논의, 범죄 발생 전 증거수집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테러 용의자와 테러 계획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테러공격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테러리즘의 핵심내용이다[2].

이처럼 테러 공격의 결과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테러 발생 이후의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형사사법기관들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2. 위기관리 모형

2.1.2.1. 개념

흔히 위기의 개념은 어떤 임박하고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반하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또는 자연적 재난이나 사건을 일컫는다[3]. 이러한 위기 개념을 전통적 시각과 현대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위기의 개념[4]

구분		내용	학자
시기	전통적 개념 (1990년대 이전)	조직이 대처하기에 내부 자원이 불충분하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며 취약한 구조적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조직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	Shackurk and Hartberg, 1977; Turner, 1976; Flammann, 1963; 최진혁, 2010: 151
	현대적 개념 (1990년대 이후)	오래된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변화(transformation)의 과정 위기에 내재된 충격적인 경험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변화(change)와 학습(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발달과 연관	Vanette, 2004; Fauchant and Mirrofi, 1992
분야	정치적	쿠데타, 대통령 탄핵, 불핵 위기	윤병준(2007)
	경제적	위조지폐, 유가급등, IMF	
	전통적	전쟁, 외교적 위기, 국지도발, 간첩침투	
	안전분야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 테러리즘	

위기관리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통일된 개념 정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등 발생하는 위기의 범위와 종류 역시 다양하고, 현대 국가의 위기 영역은 군사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자원, 기술과 대형의 재난 등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5]. 하지만 Henderson(2003a, 2003b)은 재난과 위기의 개념을 그 크기와 원인에 의해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6].¹⁾

이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

1) Faulker 와 Vikulov는 위기는 내부적으로 발생되어 감소되며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재난은 외부적으로 발생하며 규모면에서 좀 더 위협적이라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탕으로 전통적 위기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기관리를 ‘국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7]. 이러한 테러리즘의 논의 과정에서 위기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위기의 포괄적 시각 중 안전분야에서 테러리즘을 바라보는 공통된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1.2.2.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많은 위기관리 관련 학문과 학자들이 위기관리를 둘러싼 역학관계, 준비과정, 실제 수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많은 모델들을 창안해 냈다.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위기관리 모델을 살펴보면 Littlejohn(1983)은 조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를 탐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성, 위기관리팀의 구성, 교육 및 개발, 위기 감사, 비상 계획의 개발, 위기관리 실행, 즉 위기를 관리하는 여섯 단계의 위기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위기 징후 파악과 위기 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주현식, 2006). Pauchant와 Mitroff(1992)는 양파모델인 4단계 모델을 개발하여 조직을 위기에 취약하거나 위기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구분하였다[8].

이와 같이 위기관리 모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위기관리의 활동과 목표는 ‘총체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CEM)’에 기반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관리 모형은 위기관리 기능을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9]. 즉, 위기의 발생을 중심으로 위기발생 이전 국면과 위기발생 이후 국면으로 나누고, 위기발생 이전 국면은 예방과 완화단계(prevention and mitigation)와 준비단계(preparedness)로, 위기발생 이후 국면은 대응(response)과 복구단계

(recovery)로 분류한다. 이 과정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10].²⁾

2)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화단계(mitigation phase)는 위기발생 이전에 위기축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위기로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인위적 재난·재해, 자연재해, 재해·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들 간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포함한다[11]. 준비단계(preparedness phase)는 위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조직의 운영능력을 개발시키려는 단계이다[12]. 준비단계의 세부활동에는 위기종류별 대응훈련, 표준운영절차(SOP)의 확립, 위기종류별 유관기관 파악 및 확인, 인적·물적 자원 보유기관의 확인 및 협조, 자원의 수송 및 통제계획 수립 등이 있다[13]. 대응단계(response phase)는 위기가 발생하면 일련의 대응조치를 통해 재난의 심각성을 줄여가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복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위기 및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위기 및 재난 정보 수립·연락 통신수단 확보, 위기·재난발생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14]. 복구단계(recovery phase)는 위기상황이 안정되고 긴급한 인명구조와 재산보호가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위기발생지역이 위기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미래에 닥쳐올 위기 발생 피해의 영향을 줄이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위기관리의 첫 단계인 예방과 완화단계에 순환적으로 연결된다[15].

3.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2016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3개 지방청(인천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우편 및 메일을 활용하여 전체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지역 및 대상은 최근 경찰조직에서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총체적인 대응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³⁾

설문지 회수 후에는 문항 누락이 없고 일관성 있는 300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여 약 90.9% 채택률을 보였다. 설문지 내용은 테러범죄 출동 및 진압경험 2문항, 테러범죄 두려움 4문항,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 인식 8문항이며 대테러 위기관리 완화단계 10문항, 준비단계 10문항, 대응단계 10문항, 복구단계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경찰공무원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선기(2007), 이창용(2007), 오현득 외(2005), 이대성(2004)의 연구를 기준으로 대테러 위기관리 4단계를 “완화, 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통하여 경찰의 대테러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7]

완화단계의 문항은 “대테러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 “대테러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호계획

3) 강신명 경찰청장은 2016년 1월,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당정협의회에서 순찰경찰, 교통경찰,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테러 취약 요인을 살피는 다목적 순찰활동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하여 인천, 경기, 강원 등에 위치한 주요 관서의 보안 역할의 중요성과 강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16]

점검”, “테러범죄에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 “테러범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중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대테러 기관 운영지침의 작성 및 배포”,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테러범죄 유형별 대응 프로그램 작성”, “대테러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 수립”, “발생 가능한 테러범죄 예측분석” 등 10가지로 구성하였다.

준비단계의 문항은 “테러관련 법령 정비 정도”, “테러리즘 대응 교육훈련 정도”, “국가기관의 대테러 운영지침에 의한 운용 정도”, “테러관련 방호 계획 수립 정도”, “테러관련 유관기관의 조직체계 정비 정도”, “대테러 관련 사전경보시스템의 구축 정도”, “테러리즘 유형별 매뉴얼 정비 정도”, “대테러 관련 인적 자원의 확보 정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훈련 정도”, “대테러 관련 물적 자원의 확보 정도” 등 10가지로 구성하였다.

대응단계의 문항은 “테러범죄 발생시 대테러 관련 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 정도”, “테러범죄 발생시 위기상황실의 현장정보 수집·분석·전파 정도”, “테러범죄 발생시 대테러 진압 요원의 업무수행 정도”, “테러범죄 발생시 대테러 관련 기관의 신속한 출동과 대응정도”, “테러범죄 발생시 현장지휘소 또는 사고대책본부의 운영 정도”, “테러범죄 발생시 응급구조 및 의료 구급 활동 정도”, “테러리즘 유형별 매뉴얼 구축 정도”, “테러관련 시설물에 대한 GIS 활용 정도”, “테러관련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정도”, “테러관련 유관기관의 현장상황 파악 정도” 등 10가지로 구성하였다.

복구단계의 문항은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단·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복구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대테러 관련 긴급 지원 물품의 제공 여부 평가”, “테러범죄 관련 인명·재산 피해 상황 집계 및 매뉴얼의 평가”, “테러발생으로 인해 파괴된 물적 잔해제거”, “테러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대테러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평가”, “대테러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등 10가지로 구성하였다.

3.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PSS WIN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위기관리 단계에 따른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80.7%이고, 여성이 13.7%로서, 전체 경찰공무원의 성별 구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6.0%, 30대가 39.3%, 40대가 27.3%, 50대가 15.7%로서, 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이 1.7%, 고등학교 졸업이 19.7%, 전문대학 졸업이 16.0%, 대학교 졸업이 60.7%로서 대다수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근무처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지구대 근무가 36.7%이고, 경찰서 근무가 37.3%, 지방경찰청 근무가 23.7%를 차지하였다. 교육 참여 유무를 보면, 테러리즘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62.0%에 이르는 반면, 교육 참여를 한 비율은 36.6%에 그쳤다. 테러리즘 관련 출동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출동경험이 없는 비율이 83.3%이고, 출동경험이 있는 비율은 10.4% 정도였다. 근무연수를 비교해 보면, 3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34.0%, 5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6.0%, 1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4.3%, 15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14.7%, 20년 이상 근무한 비율

이 18.0%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분석

구분	변수	빈도	비율(%)	구분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42	80.7	출동관련 경험	없음	286	88.9
	여성	41	13.7		1회	20	6.7
연령	20대	48	16.0		2회	9	3.0
	30대	118	39.3		3회	9	3.0
	40대	82	27.3		4회 이상	6	1.7
	50대	47	15.7	5년 이상	102	34.0	
학력	중학교 졸업	6	1.7	근무 연수	5년 이상	48	16.0
	고등학교 졸업	69	19.7		10년 이상	48	14.3
	전문대학 재학·졸업	48	16.0		15년 이상	44	14.7
	대학교 재학·졸업	182	60.7		20년 이상	64	18.0
	대학원 이상	2	0.7	근무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290	98.9
근무 처	지구대	110	36.7		중소도시(인구 50만-100만)	1	0.3
	경찰서	112	37.3		소도시(인구 10만-49만)	9	3.0
	지방경찰청	71	23.7	농어촌지역(인구 10만 미만)	1	0.3	
	경찰청	0	0.0	교육 참여 경험	순경	88	22.7
교육 참여 경험	없음	186	62.0		정장	88	22.7
	1회	79	26.9		정사	88	22.7
	2회	22	7.3		정위	87	23.0
	3회	9	3.0		정감	6	2.0
	4회 이상	6	2.0				

근무지역에 따른 분포를 보면, 표본 선정 기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하여 인천, 경기, 강원 등에 위치한 주요 관서를 중심으로 설문지 진행된 결과, 대도시가 98.3%이고, 그 다음이 소도시가 1.0%,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 각각 0.3%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분포는 순

경이 22.7%, 경장이 22.7%, 경사가 22.7%, 경위가 29.0%, 경감이 2.0%로서, 순경부터 경위까지는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였다.

4.2. 요인 분석

4.2.1. 재난위기관리 단계의 요인 분석

재난단계에 대한 요인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단계 중 완화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대테러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 “대테러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호계획 점검”의 2문항에서 상관성이 0.4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8개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완화단계의 총 분산은 약 65.268%이고, 고유값은 5.221이며, 신뢰도는 0.924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재난관리 완화단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 (고유값)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항목- 전체 상관성	신뢰도
완화 단계 (5.221)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 분석 및 관리	.668	0.925	0.924
	테러범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794	0.915	
	중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813	0.913	
	대테러 기관 운영지침의 작성 및 배포	.845	0.910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809	0.907	
	테러범죄 유형별 대응 프로그램 작성	.833	0.909	
	대테러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 수립	.811	0.913	
발생 가능한 테러범죄 예측분석	.792	0.915		
분산 : 65.268				

둘째, 재난관리단계 중 준비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상관성이 0.4 이하로 낮은 변수는 없었기 때문에 10개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준비단계의 총 분산은 약 66.966%이고, 고유값은 6.697이며, 신뢰도는 0.945로 확인되었다.

<표 4> 재난관리 준비단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 (고유값)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항목- 전체 상관성	신뢰도
완화 단계 (6.697)	테러관련 법령 정비 정도	.749	0.943	0.945
	테러리즘 대응 교육훈련 정도	.833	0.938	
	국가기관의 대테러 운영지침에 의한 운용 정도	.845	0.938	
	테러관련 방호 계획 수립 정도	.865	0.937	
	테러관련 유관기관의 조직체계 정비 정도	.852	0.937	
	대테러 관련 사전경보시스템의 구축 정도	.765	0.942	
	테러리즘 유형별 매뉴얼 정비 정도	.809	0.940	
	대테러 관련 인적 자원의 확보 정도	.805	0.940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훈련 정도	.843	0.938	
대테러 관련 물적 자원의 확보 정도	.810	.940		
분산 : 66.966%				

셋째, 재난관리단계 중 대응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상관성이 0.4 이하로 낮은 변수는 없었기 때문에 10개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5> 재난관리 대응단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 (고유값)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항목- 전체 상관성	신뢰도
대응 단계 (6.302)	테러범죄 발생시 대테러 관련 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 정도	.723	0.934	0.937
	테러범죄 발생시 위기상황실의 현장정보 수집·분석·전파 정도	.804	0.930	
	테러범죄 발생시 대테러 진압 요원의 업무수행 정도	.758	0.932	
	테러범죄 발생시 대테러 관련 기관의 신속한 출동과 대응정도	.782	0.931	
	테러범죄 발생시 현장지휘소 또는 사고대책본부의 운영 정도	.856	0.927	
	테러범죄 발생시 응급구조 및 의료 구급 활동 정도	.823	0.929	
	테러리즘 유형별 매뉴얼 구축 정도	.798	0.930	
	테러관련 시설물에 대한 GIS 활용 정도	.807	0.930	
	테러관련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정도	.829	0.928	
	테러관련 유관기관의 현장상황 파악 정도	.808	0.929	
분산 : 63.924%				

대응단계의 총 분산은 약 63.924%이고, 고유값은 6.392이며, 신뢰도는 0.937로 확인되었다.

넷째, 재난관리단계 중 복구단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상관성이 0.4 이하로 낮은 변수는 없었기 때문에 10개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복구단계의 총 분산은 약 57.585%이고, 고유값은 5.759이며, 신뢰도는 0.917로 확인되었다.

<표 6> 재난관리 복구단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명 (고유값)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항목-전체 상관성	신뢰도
복구 단계 (5.759)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단·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782	0.907	0.917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729	0.911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복구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630	.916	
	테러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726	.911	
	대테러 관련 긴급 지원 물품의 제공 여부 평가	.745	.909	
	테러범죄 관련 인명·재산 피해 상황 집계 및 매뉴얼의 평가	.778	.907	
	테러발생으로 인해 파괴된 물적 잔해제거	.801	.906	
	테러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814	.905	
	대테러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평가	.780	.907	
	대테러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786	.907	
분산 : 57.585%				

4.3. 위기관리 단계에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각 단계에 대한 교육 참여별 차이검증에서는 완화단계와 대응단계에서 교육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참여집단의 평균(2.35)이 비참여 집단의 평균(2.19)보다 더 높았다. 대응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참여집단의 평균(2.36)이 비참여 집단의 평균(2.22)보다 더 높았다.

<표 7> 교육참여별 차이검증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참여	없음	2.1997	.69776	2.0824	.82216	2.2267	.69626	2.2478	.62082
	있음	2.6621	.68166	2.1610	.64870	2.6648	.67624	2.6666	.66671
t값/유의확률		(-)2.266/0.028*		(-)1.847/0.101		(-)1.984/0.048*		(-)1.892/0.066	

* p<0.05

근무연수별 차이검증에서는 완화단계와 준비단계에서 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인 집단과 10년 이상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34)이 10년 이하의 단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18)보다 높았다.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10년 이상 장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16)이 10년 이하의 단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01)보다 높았다.

<표 8> 근무연수별 차이검증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근무연수	10년 미만	2.1629	.67126	2.0166	.69466	2.2609	.66690	2.2420	.66921
	10년 이상	2.6412	.69244	2.1809	.69162	2.6121	.66090	2.6611	.66981
t값/유의확률		(-)2.261/0.028*		(-)2.079/0.043*		(-)0.691/0.478		(-)1.719/0.087	

* p<0.05

성별 차이검증에서는 복구단계에서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남성 경찰공무원의 평균(2.32)이 여성 경찰공무원의 평균(2.14)보다 높았다.

<표 9> 성별 차이검증

	성별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남성	2.2684	.666820	2.0907	.60766	2.2800	.60020	2.8246
여성	2.1826	.46678	1.9978	.62662	2.1664	.66618	2.1409	.46666	
t값/유의확률		1.172/0.246		0.822/0.412		1.046/0.296		2.018/0.046*	

* p<0.05

연령별 차이검증에서는 위기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40대 미만인 집단과 40대 이상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40대 이상 장년층 경찰공무원들의 평균(2.41)이 40대 이하 청년층 경찰공무원들의 평균(2.14)보다 높았다.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40대 이상 집단의 평균(2.23)이 40대 이하 집단의 평균(1.96)보다 높았다. 대응단계에서도 역시 40대 이상 경찰공무원의 평균(2.38)이 40대 이하 경찰공무원의 평균(2.20)보다 높았다. 복구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40대 이상 경찰공무원의 평균(2.42)이 40대 이하 경찰공무원의 평균(2.20)보다 높았다.

<표 10> 연령별 차이검증

	연령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40대 미만	2.1671	.64646	1.9822	.64466	2.1984	.66781	2.2018
40대 이상	2.4080	.61080	2.2291	.66262	2.6781	.60666	2.4186	.66466	
t값/유의확률		(-)3.8680/0.000*		(-)3.7970/0.000*		(-)2.8668/0.006*		(-)6.444/0.000*	

* p<0.05

학력별 차이검증에서도 위기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집단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전문대학 이하 경찰공무원들의 평균(2.44)이 4년제 대학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평균(2.14)보다 높았다.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전문대학 이하 집단의 평균(2.21)이 4년제 대학 이상 집단의 평균(2.00)보다 높았다. 대응단계에서도 역시 전문대학 이하 경찰공무원의 평균(2.38)이 4년제 대학 이상 경찰공무원의 평균(2.21)보다 높았다. 복구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이하 경찰공무원의 평균(2.42)이 4년제 대학 이상 경찰공무원의 평균(2.21)보다 높았다.

기타 변수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학력별 차이검증

	학력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문대학 이하	2.4692	.64621	2.2174	.67266	2.6666	.66182	2.4264
4년제 대학 이상	2.1416	.61866	1.9921	.66276	2.2066	.64148	2.2126	.46621	
t값/유의확률		4.071/0.000*		2.666/0.006*		2.666/0.018*		6.179/0.000*	

* p<0.05

5. 결론

테러리즘은 개인적 범익에서부터 국가적 범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범익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철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경찰조직은 대테러리즘 업무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의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참여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완화단계와 대응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참여집단의 평균(2.35)이 비참여 집단의 평균(2.19)보다 더 높았다. 대응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참여집단의 평균(2.36)이 비참여 집단의 평균(2.22)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대테러리즘 교육훈련의 강화와 다양화 과정을 통해 발생가능한 테러리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 근무연수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완화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34)이 10년 이하의 단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18)보다 높았다.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10년 이상 장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16)이 10년 이하의 단기근무 경험자들의 평균(2.01)보다 높았다. 따라서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근무연수별 인식차이도 대체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대테러 교육·훈련 등 완화단계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공무원들도 테러범죄의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무연수는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연령별 인식차이의 유의미한 결과와 연계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복구단계에서 남성 경찰공무원의 평균(2.32)이 여성 경찰공무원의 평균(2.14)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 경찰공무원이 대테러리즘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도와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적어 인식 역시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넷째, 연령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완화단계에 대한 내용에서 40대 이상 장년층 경찰공무원들의 평균(2.41)이 40대 이하 청년층 경찰공무원들의 평균(2.14)보다 높았다.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에서도 40대 이상 집단의 평균(2.23)이 40대 이하 집단의 평균(1.96)보다 높았다. 대응단계에서도 역시 40대 이상 경찰공무원의 평균(2.38)이 40대 이하 경찰공무원의 평균(2.20)보다 높았다. 복구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40대 이상 경찰공무원의 평균(2.42)이 40대 이하 경찰공무원의 평균(2.20)보다 높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40대 이상) 대테러리즘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입 경찰공무원 등 입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연령대의 집중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대테러 위기관리 인식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응답 표본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경찰작전부대, 대테러부대 등 대테러리즘 관련 부서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전반적인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의 지역·조직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년 8월 20일 검색.
- [2]이대성·주성빈, In Search of Deterrence Strategy against Cyber Terrorism to Strengthen the National Security, 한국위기관리논집, 12(9): 129-142, 2016.
- [3]최진혁,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해의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36권, 2010.
- [4]Starbuck, W. & Hedberg, B. Saving an organization from a stagnating environment. In H. Thorelli (ed.), Strategy + Structure = Performanc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Hermann, C. Some consequences of crisis which limit the viabilit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8, 1963; 최진혁,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해의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36권, 2010; Pauchant, T. C. & Mitroff, I. I. Transforming the crisis-prone organization: Preventing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traged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2; 윤병준, 재난과 위기관리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7.
- [5]조영갑, 이라크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군사, 제50호, 2003.
- [6]Henderson, J. C. Case Study: Managing a health-related crisis: SARS in Singapor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0(1), 2003a; Communicating in a crisis: flight SQ 006, Tourism Management, 24(3), 2003b.
- [7]경찰청, 「테러」 위기대응 (지원) 실무매뉴얼, 서울: 경찰청, 2005.
- [8]Littlejohn, Robert F. Crisis Management: A Team Approach, AMA Membership Publications Division,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s, 1983; 주현식, 국내 컨벤션산업 위기관리의 전략적 접근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6; Pauchant, T. C. and I. Mitroff. Transforming the Crisis-Prone Organization: Preventing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Tragedi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2.
- [9]Petak, W.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1985; McLoughlin, 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985; Waugh, W. Regional Emergency Management: Countries as State and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3), 1994;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Crisisonomy, 제1권 제1호, 2005: 29-30; 이대성, 경찰관의 테러 위기관리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3호, 2009.
- [10]McLoughlin, 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985; Petak, W.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1985; 박동균. 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2005; 배대식. 위기관리관점에서 대학의 안전관리 법제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2008; 배철효. 민간경비 종사자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 [11]이진규.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행태론적 특성 연구, 국민안전처 연구용역 보고서, 2008.
- [12]McLoughlin, 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985.
- [13]이종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4.
- [14]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2014.
- [15]김영수·조석주. 국가재난 대비 행정체제의 구축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박동균·이재호. 중국정부의 위기관리 대응과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2003.
- [16]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2016년 1월 20일 기사.
- [17]이선기,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2007; 이창용,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2007; 이대성·오현득·여호근, 스포츠이벤트의 테러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경찰, 소방, 군 조직 비교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1호, 2010; 이대성,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저자 소개] —————



주 성 빈 (Joo, Seong Bhin)
2007년 동의대학교 경찰학학사
2010년 동의대학교 경찰학석사
2015년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조
교수

email : tjdqsw@hanmai.net